

##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에 영향 미치는 사회적 관계: '단단한 껍데기'와 '날개'가 되는 관계를 중심으로

유수정\*·이청아\*\*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양상을 그대로 드러내어 보여줌으로써 이들의 다중부담 완화와 웰빙(well-being)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 6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에 적응해가는 결혼이주여성을 나비가 되어 비상을 기다리는 번데기에 비유하여 이들의 다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에게 '단단한 껍데기'로 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는 이들의 어머니, 며느리, 아내, 외국인으로서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한편,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지지가 되는 사회적 관계는 '날개'로 작용하여 이들의 다중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 이주 후 새롭게 맺는 사회적 관계가 이들의 다중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정 내 성평등을 위한 프로그램 방향성 설정, 상호문화존중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응 교육 실시, 원주민과 이주여성 간 자조모임 확대를 위한 정책 개정 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사회적 관계, 다중부담, 사례연구

\* 제1저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ysj9706@yonsei.ac.kr)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violet9741@snu.ac.kr)

## I. 서론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점수(남성 4.7점, 여성 5.3점)와 우울 위험군(남성 17.2%, 여성 18.9%)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1).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해외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우울장애 유병률이 2배 이상 높으며, 기혼여성의 우울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Dietch & Bunney, 2002; Noble, 2005). 기혼여성은 가사노동과 양육에 남성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다중역할로 인한 역할 갈등을 겪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외국인으로서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한 채 여성에게 주어지는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까지 해내야 하다 보니 다중부담이 심화된다(유수정 외, 2021). 이에 결혼이주여성은 우울에 더욱 취약한 집단임이 다수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전경숙, 2017; 박민희·양숙자·지연경, 2015; 최현미·고미경·윤명숙, 2013; 노소영·김은영, 2012;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021).

한편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사회적응과 다중부담 및 정신건강에 있어 사회적 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커질수록 결혼이주 여성의 부담이 심화되어 우울을 경험하게 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Chaudhry et al., 2012; O'Mahoney et al., 2012). 다수의 결혼이주여성은 기존의 관계와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 범위가 좁으며 이주 이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더라도 관계 내 여러 갈등과 어려움은 이들의 부담을 심화하며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Sodowsky & Lai, 1997; 이주재·김순규, 2010). 반대로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긍정적 사회적 관계는 지지가 되어 큰 도움이 된다(Sam & Berry, 2005; Townley & Kloos, 2011). 결혼이주여성의 긍정적 사회적 관계는 새로운 문화에서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고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충해준다(이주재·김순규, 2010). 특히 사회적 지지는 낯선 환경에서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능력 정도를 향상시키고 이들의 심리적응을 촉진한다는 점(Levitt, 2005)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듯 사회적 관계는 한 개인의 다중부담을 심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지지 체계로 작용하여 부담을 완화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다중부담과 사회적 관계를 함께 본 국내 연구 가운데 다중부담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에 집중하는 연구는 거의 부재하였다. 이에 연구진은 다중부담에 미치는 사회적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이주민이자 여성으로서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결혼이주여성을 번데기에 비유하고, 사회적 관계를 ‘단단한 껍데기’와 ‘날개’를 활용해 표현하였다. 번데기는 ‘단단한 껍데기’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단단한 껍데기’의 모습은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방해하여 다중부담을 심화하는 사회적 관계의 모습과 유사하다. 반대로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을 완화하고 지지 역할이 되어주는 사회적 관계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번데기에서 나와 비상하는 나비처럼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다중부담과 그들의 사회적 관계가 가지는 풍부한 의미와 특성을 가감 없이 담아내기 위해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제시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 완화 및 웰빙(well-being)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6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결혼이주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어떤 모습인가?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가 이들의 다중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II. 문헌 고찰

### 1.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

결혼이주여성은 여성으로서 어머니, 며느리 그리고 아내 등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다중부담을 가지게 되고 이는 이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결혼이주여성이 아내로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가부장적인 권력 배분으로 인한 종속적 관계, 불신과 감시 등이 있다(홍달아기·채옥희, 2006; 최금해, 2007; 김진숙·이혁구·이근무, 2010). 며느리로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언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문화차이로 인한 가치관 및 생활방식과 관련한 갈등, 시집살이 등이 지적된다(홍달아기·이선우·황은경, 2014). 결혼이주여성은 시부모에게 종속되거나(김기홍, 2011) 인정받지 못할 때 정신

적 어려움이 크며 시댁식구의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는 이들의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한다(이현심, 2014).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이주 후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임신과 출산을 하여 어머니로서 겪는 어려움이 크다. 미숙한 한국어능력,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함께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남편은 어머니로서의 역할 부담을 더해준다. 더욱이 결혼이주여성은 일반적인 유자녀 기혼여성에 비해 외국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할 확률이 높아 부담이 가중된다.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0.9%이었다(최윤정 외, 2019). 구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대화에서 소외되는 관계적 배제, 동네 사람들과의 안전 혹은 친숙함에서 소외되는 지역사회 배제 등을 겪는다(김창기·이진성, 2013). 즉, 결혼이주여성은 여성이자 외국인으로서 다중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언어, 문화, 관습, 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김영란, 2006) 어머니, 아내, 며느리 등 다중 역할 수행에 있어 부담이 심화된다.

## 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특징

결혼이주여성은 장기 정착 가능성이 높은 이주 집단으로 이주 후 맺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는 이들의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민무숙 외, 2013). 하지만 박순희와 조원탁(2013)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여성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이 좁고 약하다. 구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은 가족 의존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 외적으로는 동일 출신국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 상당히 한정적인 관계 범위를 구축하고 있다(Ryan et al., 2008; Donnelly et al., 2011). 또한 본국 사회적 관계와의 단절과 새롭게 형성한 사회적 관계 내 갈등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결혼이주여성의 부담을 가중한다(Sodowsky & Lai, 1997; 이주재·김순규, 2010). 결혼이주여성은 본국에서 가깝게 지냈던 가족 및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며 심리적 외로움과 낮은 자존감, 죄책감, 슬픔, 불안 등을 경험하며 심할 경우 우울을 겪는다(Potocky & Naseh, 2002). 즉, 문화적으로 낯선 환경 및 관계가 결혼이주여성을 고립시킴으로써 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우울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진다. 또한 이주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 내에서 겪는 차별과 배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을 낮춘다(Simich, Maiter

& Ochocka, 2009).

반면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효과, 즉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관계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정신적·물질적 형태이다(김진·이종운·김영숙, 2015).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과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김순옥·임현숙·정구철, 2013). 배우자뿐 아니라 가족 및 친구, 주변인의 지지 또한 이들의 삶에 긍정적 의미를 주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문무현·한진환, 2018; 이해경·전혜인, 2013). 이외에도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으로부터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과 돌봄 등의 서비스를 비롯한 물질적 지지를 얻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한다(임안나·박영숙, 2017). 또한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가족 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가족센터<sup>1)</sup>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정보적 지지가 되어준다. 즉, 긍정적 사회적 관계를 통한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부담을 완화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가족, 이웃, 친구), 공식적(가족센터) 연결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방법

본 연구 전 연구진들은 가족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하며 거주기간이 길더라도 결혼이주여성들이 구조화된 설문지 응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서술형 문항은 아예 적지 못하거나 현지어로 작성해 그들의 욕구와 목소리가 완벽히 전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진은 질적연구가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고려해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구 참여자의 고유한 언어로 그들을 깊이 이해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여러 방법 중 사례연구를 채택하였다. 사례연구는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 사례에 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 실시하는 연구 방법론이다(Stake, 1995). 사례연구의 초점은 상황 속의 사람에 있으므로 사례를

---

1)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맥락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신경림, 2004). 따라서 연구진은 본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특정 사례에 집중하여 이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다중부담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례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고 두 가지 분석을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들은 총 6명으로 의도적 표집 과정을 통해 선정하였다. 본 연구진은 서울시 OO구 가족센터에 협조를 요청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원활한 인터뷰 진행을 위해 참여자 선정 기준을 한국에 거주한 지 8년 이상<sup>2)</sup>인 결혼이주여성으로 설정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참여자	본국	연령	거주기간	남편 연령	자녀 연령
A	중국	35	9년 8개월	39	10/8
B	중국	32	9년 3개월	40	9/4
C	베트남	37	15년	50	14/11/5
D	일본	42	16년 11개월	46	12/9
E	베트남	29	8년	42	7
F	베트남	32	9년 9개월	50	10/8

코로나19로 비대면 인터뷰를 고민했으나 한국어가 서툰 참여자의 특성상 제대로 된 라포 형성 및 비언어적 표현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 인터뷰 전에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 및 철회 가능성과 철회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녹취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윤리적 측면에 대한 설명은 서면과 구두로 모두 진행하였으며, 6명 참여자의 연구 동의서 서명을 받아 보관하

2) 연구참여자 모집을 의뢰한 OO구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초기정착 지원사업’에서 8년 이상 거주자를 장기 정착 결혼이주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연구진도 8년 이상 거주자가 한국어 인터뷰가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로 설정하였다.

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인터뷰는 2021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OO구 가족센터 상담실에서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한 시간에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참여자 1명과 연구자 2명이 참여하는 대면 인터뷰로 진행되었고, 참여자 1인당 약 90분 동안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인터뷰 사전에 구조화된 질문을 설문지로 제작해 참여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 및 다중부담에 관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하였다. 이때 질문 내용은 가족센터 사례관리사 분들과 회의를 통해 작성하였다.

수집한 자료들은 에믹코딩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에믹코딩은 연구현장의 내부적 관점, 참여자들의 시선과 입장을 취하는 태도로 자료를 귀납적으로 코딩 및 분류하는 방법을 의미한다(전가일, 2021). 본 연구진은 원자료를 반복하여 읽어보면서 핵심 어절이나 어구를 표시하고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 분류하였다. 주제들을 모아 중범주를 정하였고 그 후 대범주를 만들었다. 이 작업을 한 번에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추가적으로 수정·보완하며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였다.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진의 해석이 참여자가 말한 의도를 반영했는지 재확인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사례 내 분석

참여자 A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한국에 관심이 생겼고 당시 중국에 유학 온 남편을 만나 연애 후 결혼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이주 초반에는 언어로 인해 시댁 식구들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도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불편함을 느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표현했다. 면세 매장에서 일을 할 때도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는데 남편도 반대해서 참여자 A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참여자 B는 중국에서 남편을 만나 연애 후 결혼했으며 남편의 직업 때문에

결혼 후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참여자 B는 낯선 환경에서 남편의 양육 참여 없이 자녀를 돌보고 있어 부담이 컸고, 코로나19 이후 자녀와 갈등이 잦아져 부담이 가중되는 상태였다. 아내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도 남편이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대화 자체를 피해서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답답하다고 표현했다. 또한 이웃에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였고 그 정도가 심해 경찰에 신고한 경험도 있다.

참여자 C는 중매결혼을 통해 남편을 만났으며 결혼 초반에는 시어머니가 결혼사진도 보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기뻐하지 않을 정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첫째가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분가를 하고 싶어했으나 시부모님의 반대로 갈등이 있었다. 또한, 남편이 시댁 일을 모두 참여자 C에게 맡겨 참여자 C가 겪는 스트레스와 부담이 크다.

참여자 D는 지인 소개로 남편을 만나 한국에서 연애 끝에 결혼하였다. 참여자 D는 자주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남편과 갈등이 있으며 특히 ‘남편이 화를 낼 때 과격해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부부 상담을 받고, 2년 넘게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정신과에서 도움을 받고 있었다. 참여자 D는 모든 식구가 정신과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 잘못된 것이 아님은 알지만 가족 모두에게 문제가 있어 보일 것 같아 좌절감을 느낀다.

참여자 E는 한국에서 먼저 결혼한 큰 언니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다. 분가 전에는 시어머니가 자녀에게 한국 음식만 먹이게 하고 베트남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여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 남편이 일 때문에 바빠 양육부담을 모두 떠안게 되어 참여자 E는 본인만의 온전한 시간이 없다. 코로나19 심화로 자녀가 어린이집을 가지 못해 함께 하는 시간이 늘면서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고 있었다. 또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

참여자 F는 베트남에서 살고 싶지 않아 국제결혼을 결심 후 중매결혼을 했다. 참여자 F는 시댁이나 친척 모임에서 본인만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시댁 식구가 본인을 소외시킴에도 남편의 요구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댁을 자주 가고 있었다. 참여자 F는 배우자가 화낼 때 욕하고 물건을 던져 남편을 무서워하고 있으며 아파도 챙겨주는 사람 없이 혼자 병원에 갔을 때 의사소통의 한계를 느끼는 등 참여자 F의 어려움과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 2. 사례 간 분석

연구 참여자 6명의 사례를 귀납적으로 분석한 후 코드화 작업을 통해 17개의 주제, 7개의 중범주, 2개의 대범주를 도출하였다. 각각의 범주와 주제는 <표 2>와 같다.

<표 2> 범주와 주제

주제	중범주	대범주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삶: 내 시간이 없는 독박육아	어머니로서의 부담	단단한 껍데기
이주 후 급격한 역할 전환: 출산		
시댁의 한국문화 강요: “베트남 음식 먹지마라”	며느리로서의 부담	
며느리로서 애쓰는 삶: “결혼 사진도 보지 않았어”		
실망스러운 남편의 소통방식: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 같아요”	아내로서의 부담	
본인의 삶 포기하고 아내로서만 살아가기: “그냥 포기했어요”		
낯선 환경에서의 고립과 외로움: “완전 혼자야”	외국인으로서의 부담	
외국인으로서 겪는 차별과 부정적 시선: “일부러 하는 것 같아서”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 “내 편에서 시어머니를 설득해줬어요”	정서적 지지	날개
자존감을 높이는 자녀의 인정: “엄마를 막 자랑해요”		
시댁의 존중과 배려: “시댁살이 없어요”		
친구의 위로와 공감: “친구 집이 더 편한 것 같아요”		
마음이 풍족해지는 경제적 지원: “필요한 물건들 다 준비해줬어요”	물질적 지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양육: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고”		
추억과 관계회복을 선물하는 다문화센터: “관계가 좋아졌어요”		
적응에 디딤돌이 되는 다문화센터 교육: “한국어 교육이 도움이 됐어요”	정보적 지지	
육아선배의 아낌없는 조언: “아이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 1. 단단한 껍데기

### 1) 어머니로서의 부담

#### (1)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삶: 내 시간이 없는 독박육아

참여자들은 양육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즉, 참여자들은 본인의 삶이 아닌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역할이 요구되었고 그 안에서 ‘나’로서는 존재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모든 참여자들이 주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남편은 일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무관심하거나 육아를 보조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의 악화로 거리두기 단계가 심화되면서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해 자연스럽게 자녀와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양육의 양과 시간은 배가 되었고 자녀와 부딪히는 일은 더 많아졌다. 가중된 양육 부담으로 인해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온전히 본인만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참여자들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은 심화되었다.

“요즘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코로나 때문에 더 못 나가고 아기도 못 나가고 엄마도 못 나가고. 그래서 더 힘들어... 남편은 아예 나가서 일하고 얼굴도 잘 안 보고” (참여자 B)

“힘든 적도 있죠. 지금도 계속 집에 있으니까. 힘들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중략) 집에 있다보니까 아이랑 싸워갖고, 싸우는 게 있잖아요. 말하면서 이제 가끔 스트레스 받죠.” (참여자 E)

#### (2) 이주 후 급격한 역할 전환: 출산

결혼이주여성은 이주 후 빠른 시일 내에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과도기조차 거치지 못한 채 역할 전환이 급히 이루어졌다. 낯선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바로 주어진 것이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한국에 적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전적으로 담당해야 하다 보니 참여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더욱 심했다. 한편 기존의 사회적 관계와 단절되어 남편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큰 상황에서 배우자가 지지가 되지 못하는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부담은 심화되었다. 낯선 환경에서 배우자의 지지가 없으면 혼자 여러 변화를 감당하고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참여자는 출산 후 친정어머니가 한국에 와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남편의 도움은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첫째) 아기 낳고 우울 있었어요. 처음에 한국어 배우지 않았어요. 아기 낳았어. 그때 느꼈어요. 아... 한국말 배워야 돼... 그래서 좀 어려웠어 그때 많이. 혼자 병원도 못 갔어요. 남편도 일해야 돼서. 아기 아프면 저 혼자도 못 가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어... (중략) 그냥 아기 울면 저도 따라서 울고. 그냥 맨날 기분도 안 좋고.” (참여자 B)

“출산하고 그러면 우리 친정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는 건데 어머니가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 (중략)아기 낳은 후에 바로 어머니가 와가지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어머니가 베트남에 가요. 그거 때문에 계속 집에 있고 근데 우리 아기 아빠가 놀러가는 별로 그거 신경 안 쓰고 돈만 버는 거 신경써요. 내 집에 놀러 간 적은 별로 없어요.” (참여자 F)

## 2) 며느리로서의 부담

### (1) 시댁의 한국문화 강요: “베트남 음식 먹지 마라”

결혼이주여성은 이주와 동시에 결혼을 하게 되어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시댁 식구들과 결혼이주여성은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수십 년간 생활했기 때문에 서로가 낯설게 느껴지고 그 가운데서 이질감과 갈등을 겪는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친정 식구와 떨어져 혼자 낯선 땅에 오게 되어 시댁 식구와 갈등을 겪게 될 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시댁 식구와 함께할 때 심리적 불편함과 부담을 호소하였다. 한 참여자의 시댁 식구는 결혼이주여성에게 본국 요리를 못 하게 하거나 본국 언어를 자녀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다. 시댁이 결혼이주여성 본국 문화에 대한 존중 없이 한국문화를 강요할 때 이들은 며느리로서 시댁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옆에 있으면 아마도 스트레스 받아요.” (참여자 A)

“먹는 거는 그냥 자주 신경쓰셔가지고. ‘(아이들) 음식은 한국 음식 먹여줘라, 베트남 음식 먹지 마라’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는 베트남 얘기 가르치잖아요. ‘네가 이거 알려주면 안 된다’ 시어머니 그랬는데”. (참여자 E)

### (2) 며느리로서 애쓰는 삶: “결혼 사진도 보지 않았어”

참여자들은 시댁 식구로부터 며느리로서의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행사나 모임에서 소외당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참여자 C는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중매 결혼으로 온 외국인 며느리는 아이만 낳고 본국으로 도망갈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반대로 시어머니와 시할머

나는 결혼 이후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한동안 참여자 C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참여자 C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의 간병을 돕는 등 며느리로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시댁 식구들끼리의 대화에서 소외당하거나 무시 받는 참여자도 있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시댁 식구들은 한국 문화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 F를 챙기기보다는 소외시키며 본인들끼리만 아는 대화를 나눴고 그 속에서 참여자 F는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럼에도 참여자 F는 남편의 요구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족 모임에 남편과 동행해야 했고 이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을 며느리로서 인정해주지 않는 시댁은 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관계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결혼할 때는 (시)엄마하고 우리 (시)할머니하고 반대 많이 했대요. 저 결혼 사진도 안 봤잖아요. 저 올 때까지 결혼 사진도 보지도 않았어 시어머니가… (중략) 애기 낳고도 반가워하지도 않았어.” (참여자 C)

“(시골에 가는 거는) 남편이 그럼 가는 거죠. (제가) 원하는 건 아니죠. 남편이”가 “그러면 가죠.”(참여자 F)

### 3) 아내로서의 부담

#### (1) 실망스러운 남편의 소통방식: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 같아요”

연애 및 결혼 전후로 달라진 남편의 실망스러운 소통방식은 참여자들에게 아내로서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남편의 의사소통 방식은 부부 간 문제해결 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이지은·윤호균, 2007)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한 참여자는 연애 때는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던 남편의 과묵함이 결혼 후에는 답답함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남편의 회피적 소통방식은 참여자의 일방적인 소통과 부부 간 대화의 단절을 가져왔다. 남편의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태도와 언행,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무서움을 느끼거나 감당하기 힘들다고 표현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또한 남편의 다혈질적인 성격은 참여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지속적인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참여자 F는 중매결혼으로 남편과 결혼 전 교류가 부족한 채 결혼생활을 하게 되어 어려움이 있었다. 결혼 후 알게 된 실망스러운 남편의 소통방식으로 상처를 받았지만,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남자 성격 너무 좋았는데. 그때 좋은 점 지금 보면 다 안 좋은 거야. 그땐 말도 많  
이 없이 조용한 남자 너무 좋았고...지금 보면 너무 짜증나.” (참여자 B)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낼 일인가. 제가 감당이 가능한 수준보다 좀 더 세게 화를 내가지  
고. 그래서 좀 제가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 같아요.” (참여자 C)

“(남편한테) 자꾸 달라고 하면(요구하면) 안 되고. 그냥 포기해...(중략) 그냥 지나가.  
따지는 거하고 싸우는 거 그런 건 안 해요. 참아야죠.”(참여자 F)

#### (2) 본인의 삶을 포기하고 아내로서만 살아가기: “그냥 포기했어요”

참여자들은 한국에 이주함으로써 본인의 삶을 포기하고 아내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다. 참여자 E의 경우, 결혼 때문에 한국에서  
살게 된 것에는 후회는 없으나 본국에서의 유아 교사를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 포기하여 한국에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만 살아가는, 직장이 없는 본인의  
모습이 ‘허무하다’고 하였다. 참여자 B 또한 결혼 당시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  
던 본인이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오는 것이 유일한 길이였기에 한국으로 이주했  
지만 본인의 삶을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었으며 참여자 B와 참여자 E 모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본인만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비쳤다.

“저는 원래 한국에 온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는 시험 봐가지고  
이제 유아 교사 합격했는데 그걸 포기해서 여기 온 거예요. 결혼하니까. 허무했어요.  
살짝 (시험) 다 봤는데.” (참여자 E)

“그 당시에는 직장 안 다니고 있어서 남편 따라 한국에 살게 됐어요. 여기 오면 언어  
때문에도 힘들고 쉽지 않아서. 내가 그냥 포기했어요. 지금은 이제 애들이 어리긴 한  
데 조금 더 크면 직장 다니고 싶어요.” (참여자 B)

### 4) 외국인으로서의 부담

#### (1) 낯선 환경에서의 고립과 외로움: “완전 혼자야”

본국과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결혼이주여성은 타지 생활로 인  
하여 고립을 겪는다(주소희·이정은, 2014). 참여자들은 낯선 환경 내 본인을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 외국인으로서의 ‘외톨이’의 모습을 보  
여주고 있었으며 실제로 많은 참여자들이 인터뷰 과정에서 ‘외롭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타지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이들  
의 외로움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 참여자는 이주 후에도 몇 년 동안  
제대로 바깥세상과 교류할 일이 없어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시댁

식구, 남편,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로 고립과 심적인 거리감을 느끼는 참여자들도 있었으며, 본국에서처럼 편하게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가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친구 문제 어렵고... (중략) 보통 시부모 있으면 또 조금 도와주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저 거의 완전 혼자야.” (참여자 B)

“외국 사람인데 병원에 있을 때 혼자 지내니까 그래요... (중략) 우리 베트남에 그런 건(며느리가 혼자 병원에선 지내게 하는건) 없어요. (베트남에서는 보통) 시어머니하고 친정 엄마도 오고. 그다음에 시집 사람들이 또 와서 보고 친척도 와서 보고. 근데 여기는 그런 걸 좀... 외로워.” (참여자 F)

## (2) 외국인으로서 겪는 차별과 부정적 시선: “일부러 하는 것 같아서”

참여자들은 외국인으로서 낮은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며 여러 형태의 차별적 언행을 경험했고 그 경험은 눈에 보이는 확연한 차별부터 간접적 차별까지 그 범위와 유형이 다양했다. 한 참여자는 같은 직장 내 휴게실이더라도 한국인과 외국인 직원들이 사용하는 휴게 환경을 구분하여 확연한 차별을 느낀 적이 있었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차별 및 무시를 받은 경험을 공유해준 참여자도 있었다. 참여자 B는 본인이 버린 쓰레기가 아님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웃이 본인을 의심해 싸운 경험이 빈번했다. 이외에도 다른 입주자의 실수로 주차장 차단기에 참여자 B가 얼굴을 맞았지만 본인의 말투를 들은 후 외국인임을 알고는 상대방이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듯 참여자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는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어렵게 하고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담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은 차별을 겪어도 한국의 법체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차량 리모컨 눌러서 (제) 얼굴 이렇게 치고 지나갔어요. 사과도 안 하고 저한테 소리 지르고... (중략) 그러다 그냥 말투 들으면 바로 알잖아. 외국 사람이라서 그렇게 일부러 하는 것 같아서.” (참여자 B)

## 2. ‘날개’가 되어주는 사회적 관계

### 1) 정서적 지지

(1)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 “내 편에서 시어머니를 설득해줬어요”

남편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주 후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존재이기에 결혼이주여성은 가족 중 남편에게 가장 많이 의존하며(이은주·전미경, 2013) 남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받는 영향은 크다. 이들은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느낄 때 부담이 완화되고 안정감을 느끼며 지속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신혜정 외, 2015). 인터뷰를 통해서도 문화 차이로 식탁 식구와 참여자 간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이 참여자 편이 되어 중재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참여자에게 지지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 E는 자녀 양육 방법에 있어 시어머니와 의견이 달라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부담을 느꼈는데, 그때 남편이 참여자 E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설득해주었다. 참여자 E는 평소에도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참여자 E가 다중부담으로 역할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때 남편이 참여자 E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었고 이는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낯선 환경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의 역할과 의미는 결혼이주여성에게 큰 정서적 지지가 되며 이들이 가진 다중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남편도 다문화 다니니까 상담도 많이 받고 어머니랑 같이 다시 얘기해 보니까. 이제 괜찮아요. … (중략) 이제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제 남편도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야. 엄마도 엄마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많이. 자꾸 설득을 했어요.” (참여자 E)

(2) 자존감을 높이는 자녀의 인정: “엄마를 막 사랑해요”

참여자들을 인정해주는 자녀의 존재는 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겠다는 다짐의 원동력이 되는 등 한국 생활 및 적응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자녀의 인정은 어머니, 며느리, 아내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하며 겪는 부담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국사회에 더욱 잘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어넣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참여자 A의 자녀는 어머니가 외국인임을 친구들한테 숨김없이 이야기했으며, 자녀의 인정은 참여자 A에게 큰 지지로 다가왔다. 참여자 E는 본인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를 보며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해

야겠다는 원동력을 얻었으며, 한국 사회에 앞으로도 잘 적응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였다.

“□□이는 친구한테도 자랑하는데 ‘우리 엄마가 외국인이야. 그냥 중국어 국제 강사인데’ 이렇게 (말하는거) 들었어요. (엄마가 외국인인 거 속인 적) 지금까지 없어요.”  
(참여자 A)

“○○이는 항상 어디 가서든 엄마 막 자랑해요...(중략) 그래서 제가 맨날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그래야 이제 아끼랑 같이 또 대화하고 다른 엄마들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게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어요.” (참여자 E)

### (3) 시댁의 존중과 배려: “시댁살이 없어요”

이주 후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관계 중 하나인 시댁 식구의 배려와 존중은 참여자들에게 큰 지지가 되었으며 며느리로서 겪는 부담을 완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참여자 D는 시집살이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시댁 식구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표현했으며 본인을 배려해주는 시댁 식구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다. 시댁 식구들은 외국인 며느리가 어려워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배려함으로써 참여자 D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참여자 C의 경우 이주 초반에 한국어가 서툰 본인을 배려하여 시아버지가 베트남 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소통하려고 노력해주셨다고 서술하였다. 시댁 식구가 참여자 C에게 한국 문화 적응을 강요하지 않고 며느리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참여자 C에게 큰 지지가 되었다. 시댁의 존중과 배려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 후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여러 역할로 인한 다중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용기를 가진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주 후 시댁과 가까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댁의 정서적 지지는 이들의 부담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안정적인 정착생활에 ‘날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댁살이 없어요... (중략) 시댁에 윗분들이나 다른 식구들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정말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제가 속상할 때도 이게 저희 형님, 아주버님의 부인 되시죠. 그분 이랑도 이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언도 해주시고, 좀 낯두리 하기도 하고.”  
(참여자 D)

“아버님께서 베트남어 배우는 거예요...(중략) 아버님 어디 가면 (베트남어) 책 이렇게 딱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고 그냥 딱 넣고. 저랑 얘기 할 때는 (책을) 빼가지고 애



기하고.” (참여자 C)

(4) 친구의 위로와 공감: “친구 집이 더 편한 거 같아요”

참여자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동일 국적 친구와의 교류과정에서 지지를 얻고 있었으며 이는 참여자들이 가진 부담과 이로 인한 정신건강의 어려움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동일 국적에서 오는 소속감과 모국어 사용의 이점은 참여자들이 다중부담으로 겪은 어려움들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참여자들은 모국 친구들을 만나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서로 위로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였다. 참여자들이 관계를 맺는 모국 친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동질감이 형성하는 위로와 공감은 참여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친정에 가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귀 친구네 집에 가는 것이 더 편하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한국 내에서 가까이 관계하는 친구의 위로와 공감을 통해 얻는 정서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동네 친구들이랑 만나서 살짝 ‘우리 남편 그릇이 너무 작아’ 또 서로 그런 이야기들 이 조금씩 있으니까. ‘일본에 가버리고 싶어’ 그러다가 서로 막 위로해주고 그럴 때도 있었고.” (참여자 D)

“(친구가) 다 한 동네에 살아서 편해요. 정말 친정집에 가는 것보다 친구 집에 가는 게 더 편한 거 같아요.” (참여자 B)

## 2) 물질적 지지

(1) 마음이 풍족해지는 경제적 지원: “필요한 물건들 다 준비해줬어요”

참여자들은 시댁 혹은 친정 식구의 도움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참여자 C의 경우, 시누이가 여러 방면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참여자 C의 핸드폰, 자녀 물건 등을 대신 구매해주어 참여자 C의 생활 및 참여자 C 가정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 참여자 E는 한국으로 먼저 결혼 이주한 친언니가 분가 당시 집을 구하는데 부족한 자금 및 새 보금자리에 필요한 살림살이를 장만할 때 도움을 준 덕분에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경제적 문제는 결혼이주여성의 33.3%가 한국 생활의 주된 어려움과 부담으로 언급할 정도로(정해숙 외, 2016) 이들의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에게는 가장 주요하면서도 긴급한 문제다. 그러한 가운데 가족의 물질적

지원은 이들의 생계를 지원해줌으로써 하나의 지지가 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어머니, 아내로서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참여자들의 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가씨가 고마운 게 친정 엄마한테 연락하라고 핸드폰을 사줬고 보험도 들어주고. 아기 낳고서 (필요한 물건들) 다 준비해줬어요.” (참여자 C)

“분가할 때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또 돈이 부족해서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중략) 살림 다 사야하니까 (돈이) 좀 부족하고. 근데 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언니가 ‘너 걱정하지 마. 그거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돈에 대해서 도와줬어요.” (참여자 E)

## (2)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양육: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고”

한국에 홀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잠시 일이 있거나 혹은 아플 때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가 않아 양육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나마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친정 식구로부터 양육 도움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혼자 아이를 양육했다면 힘들었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 친정 식구의 양육 도움으로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 F의 경우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낳은 후 바로 도와주어 부담을 많이 덜었다고 이야기하였고, 참여자 B는 두 아이를 낳았을 때 모두 친언니가 도와주었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더 힘들었던 둘째 때 더욱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는 결혼이주여성이 어머니로서 가지는 부담을 감소시키며, 양육과업에 있어 심리사회적 적응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기 낳은 후에 바로 어머니가 와가지고 도와주고 그다음에 며칠 후에 어머니가 베트남에 가요··· (중략) 친정어머니가 없었으면 진짜 힘들어요. 혼자 아기 보면 힘들어요.” (참여자 F)

“(친언니가) 둘째 낳아서 거의 자주 와요. 거의 (중국) 들어가서 한, 두 달 있으면 다시 (한국으로) 오고 했어요··· (중략) 처음에 둘째가 맨날 잠 안 자고, 낮이든 밤이든 계속 울고 안아줘야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언니가 왔어요.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참여자 B)

(3) 추억과 관계 회복을 선물하는 가족센터: “관계가 좋아졌어요”

가족센터는 참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결혼이주여성 가정에 필요했던 점을 채워준다. 특히 가족센터의 여러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육아 및 가사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간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지체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참여자 E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 아빠 관계가 좋아졌다고 말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가족센터의 가족 나들이 프로그램은 평소 여행을 자주 가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 참여자는 가족센터의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음을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즉, 가족센터 프로그램은 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었다.

“집에 가서 아빠랑 같이 아기가 (장난감) 만들고. 저는 또 (그런 모습을) 사진 찍고. 관계가 약간 또 좋아졌어요. 애기랑 (아빠가) 같이 놓고 하면서.”(참여자 E)

“우리는 진짜 여기서(가족센터에서) 식구가 됐어요. 1년에 가족 여행이 두 번이고, 저는 여행 잘 안 다녔는데 여기서 많이 다녔어요.” (참여자 C)

### 3) 정보적 지지

(1) 적응에 디딤돌이 되는 가족센터 교육: “한국어 교육이 도움이 됐어요”

참여자 6명 모두 가족센터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가족센터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남편과의 건강한 소통 방법, 자녀 양육법을 배웠다. 가족센터의 서비스가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강복정, 2012)처럼 실제로 참여자들 또한 교육 이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녀의 언어 학습에 관심을 가지는 한편, 자녀가 제대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지 걱정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걱정을 가족센터의 언어 발달 수업, 이중언어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해소했다. 예를 들어 가족센터의 토픽 교육, 이중언어프로그램은 참여자와 자녀들의 언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정보적 지지의 모습을 띤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언어 문제로 인한 관계 및 육아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 내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기도 했다. 가족센터의 정보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정보와 근

본적 도움을 줌으로써 이들이 가지는 부담을 덜어주었다.

“저는 도움이 되는 거는 한국말. 한국말도 배우면서 시험도 보고. 내 능력이 어느 정도로 돼서 나중에 일할 때 ‘이 사람이 한국말 어느 정도 아냐’ 그게 또 증명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E)

“도움이 되는 거는 많아요. (자녀한테) 한국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기한테 도 4살부터 7살까지. 교육하는 거죠. 그런 거는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참여자 F)

“아기 핸드폰 이용하는 공부(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 들었어요.” (참여자 B)

## (2) 육아 선배의 아낌없는 조언: “아이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참여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 후 1-2년 이내에 아이를 갖기 때문에 육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땅치 않으며 그 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적어 양육 부담이 가중된다. 특히,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자녀 양육 어려움의 유형이 달라지면서 그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은 양육에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참여자들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주변 친구 혹은 시댁 식구들에게 자녀 양육 시 필요한 정보를 묻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학령기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참여자 E는 주변 육아 선배들로부터 자녀의 숙제 및 교과 지도에 대한 조언을 얻으며 곧 입학할 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을 덜었다. 참여자 D는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 극복 방법에 대한 경험 및 조언을 시댁식구로부터 종종 구하고 있었다. 낯선 언어 및 문화로 결혼이주여성은 자녀 양육에 더욱 부담을 느끼고 있기에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는 자녀 교육 및 양육에 대한 정보는 정보적 지지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기 키우는 거(많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딸이 둘이에요. 다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애기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저는 그런 경험 없잖아요. 그분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고.” (참여자 E)

“결혼 선배로서 시부모님 비롯해서 시누이도 그런 상담 이런 아이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 받아보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또 아주버님 덕의 형님은 지금 상담사 공부를 또 대학원에서 하고 계시고 해서 이게 경험이나 배우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이들에 대해)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여자 D)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질적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가 이들의 다중부담을 심화하는 '단단한 껍데기'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완화해주는 '날개'가 되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IRB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연구를 진행하여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연구참여자 동의취득 과정과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연구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한국어로 면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화적, 언어적 측면에서 이들의 언어를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출신국가 언어를 사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면 더욱 깊고 풍성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를 질적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및 아내로서의 역할 부담 완화를 위해 가정 내 성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인터뷰를 통해 양육분담 및 가사역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결혼이주여성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단단한 껍데기'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겪고 있는 다중부담을 덜어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가정 내 가사 분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가정 내 성평등을 위한 내용보다는 '안정적 가족생활의 유지'만을 강조하고 있어 해당 계획을 위한 프로그램은 형식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김이선, 2019b). 정책기본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내 성평등에 대한 내용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피해 문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성평등한 다문화 가족관계를 위해 가족센터는 현재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방향과 그 배경에 가정 내 성 평등성을 지향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교재는 여성의 역할을 가사와 돌봄에만 한정한다(김이선, 2019a). 따라서 기존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성평등적인 의식을 기초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정 내 가사 분담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센터의 성평등 프로그램이 질적 수준을 확보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 차이에서 오는 관계 내 갈등과 이로 인한 며느리로서의 역할 부

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문화적응 교육이 동화주의 중심이 아닌 상호존중 기반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문화적응 교육은 이주민인 결혼이주여성과 원주민인 시댁 식구가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외국인 며느리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시댁식구의 충분하지 못한 이해는 결혼이주여성의 부담을 가중하는 ‘단단한 껍데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은 많으나, 시댁 식구가 결혼이주여성이 살아왔던 국가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동화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이주민을 가르침, 포용,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구정화·박윤경·설규주, 2010).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에게만 무조건적으로 한국 문화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문화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 교육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면 가족 구성원 간 소통 과정 중 갈등이 줄어들고 가족 구성원이 ‘날개’로 작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이 외국인으로서 갖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족구성원 및 모국 출신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기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Berry와 Sam(1997)은 출신국과 이민국 주민 모두와 균형 있게 고루 잘 지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원주민과의 관계는 결혼이주여성이 장기적으로 낯선 환경인 한국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원이 된다(민무숙 외, 2013). 특히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통한 정서적, 정보적 지지가 결혼이주여성의 다중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족센터 내 원주민과 이주민의 관계를 고려한 프로그램은 거의 부재하여 두 집단 간 구분과 위계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김이선 외, 2021).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도 이주여성의 사회 참여를 중요한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조치가 조항으로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도 이주민과 원주민 간 사업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한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의 해외 사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는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시 결혼이민자 활동가 비율이 높으면 가점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마저 삭제되었다(김이선 외, 2021). 따라서

결혼이주여성과 원주민 간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법과 기본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센터를 비롯한 이주여성 지원 센터도 기존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점검하여 이주여성과 원주민 간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함으로써 링커(linker)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복정(2012).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및 서비스의 현황분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5권 제1호. 143-184.
- 구정화·박윤경·설규주(2010).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 김기홍(2011).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경험과 기대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Nongch'on Sahoe*. 제21권 제2호. 49-102.
- 김순옥·임현숙·정구철(2013).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가족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컨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221-235.
- 김영란(2006).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제45권 제1호. 143-189.
- 김이선(2019a). “다문화가족 내 성 불평등 실태와 정책 방향”. *KWDI 이슈페이퍼*. 1-8.
- \_\_\_\_\_(2019b). “다문화가족의 젠더 협상과 한국사회 전반의 성 평등 실천”. *KWDI 이슈페이퍼*. 1-6.
- 김이선·최윤정·장희영·김도혜·박신규(2021). *이주여성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사회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진·이종운·김영숙(2015).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41권 제2호. 79-103.
- 김진숙·이혁구·이근무(2010). “다문화가정 부부의 결혼적응연구-근거이론 방법론 접근”. *한국가족복지학*. 제30권. 135-166.
- 김창기·이진성(2013).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컨텐츠학회*. 제13권 제2호. 296-307.
- 노소영·김은영(2012). “농촌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제24권 제4호. 370-370.
- 문무현·한진환(2018).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가족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제16권 제7호. 165-175.
- 민무숙·김이선·주유선·이정연(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양상을 통해 본 사회통합의 과제”. *여성연구*. 제85권 제2호. 5-43.
- 박민희·양숙자·지연경(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9권 제2호. 298-311.



- 박순희·조원탁(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비교: 이주여성과 일반여성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8권 제2호. 41-57.
- 보건복지부(2021).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2022.04.02. 인출.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2021).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1차년도 (2019). <http://www.cdc.go.kr>에서 2022.04.03. 인출.
- 신경림(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신혜정·노충래·허성희·김정화(2015).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3호. 5-29.
- 유수정·송현주·박다윤·황연재(202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제3권 제2호. 69-92.
- 이은주·전미경(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변인 메타분석”.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제31권 제5호. 125-141.
- 이주재·김순규(2010).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관계망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제4호. 73-91.
- 이지은·윤호균(2007). “기혼여성의 마음챙김과 부부의사소통패턴, 결혼만족도의 관련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2권 제3호. 331-345.
- 이현심(2014).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주자의 한국생활 어려움에 관한 질적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제21권 1호. 143-176.
- 이혜경·전혜인(2013).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8권 제4호. 413-432.
- 임안나·박영숙(2017).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3호. 675-682.
- 전가일(2021). *질적연구, 계획에서 글쓰기까지*. 서울:학이시습.
- 전경숙(2017).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관련요인”. *정신간호학회지*. 제26권 제4호. 402-411.
- 정해숙·김이선·이택면·마경희·최윤정·박건표·동제연·황정미·이은아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여성가족부
- 주소희·이정은(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서적고립 및 소외와의 관련성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7권 제1호. 45-64.
- 최금해(2007).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연구”. *여성 연구*. 제72권 제1호. 143-188.

- 최윤정·김이선·선보영·동제연·정해숙·양계민·이은아·황정미(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최현미·고미경·윤명숙(2013).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영향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3호. 119-142.
- 홍달아기·이선우·황은경(2014).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하는 고부갈등과 대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3권 제5호. 789-805.
- 홍달아기·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5권 5호. 729-761.
- Berry, J. W., & Sam, D. L.(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 291-326.
- Chaudhry, N., Husain, N., Tomenson, B., & Creed, F.(2012). A prospective study of social difficulties, acculturation and persistent depression in Pakistani women living in the UK. *Psychological Medicine*, 42(6), 1217-1226.
- Dietch, K. V., & Bunney, B.(2002). The “Silent” disease: Diagnosing & treating depression in women. *AWHONN Lifeline*, 6(2), 140-145.
- Donnelly, T.T., Hwang, J.J., Este, D., Ewashen, C., Adair, C., & Clinton, M.(2011). If I was going to kill myself, I wouldn't be calling you. I am asking for help: challenges influencing immigrant and refugee women's mental health.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32(5), 279-290.
- Levitt, M. J.(2005). Social relation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The convoy model perspective. *Human development*. 48(1-2). 28-47.
- Noble, R. E.(2005). Depression in women. *Metabolism*, 54(5), 49-52.
- O'Mahony, J.M., Donnelly, T.T., Este, D. & Bouchal, S.R.(2012). Using critical ethnography to explore issues among immigrant and refugee women seeking help for postpartum depression.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33, 735-742.
- Potocky, M. & Naseh, M.(2002). *Best practices for social work with refugees and immigrants*. Columbia University Press.
- Ryan, L., Sales, R., Tilki, M., & Siara, B.(2008).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social capital: The experiences of recent Polish migrants in London. *Sociology*, 42(4), 672-690.
- Sam, D., & Berry, J.(2005). *The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 psycholog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mich, L., Maiter, S. & Ochocka, J.(2009). From social liminality to cultural negotiation: Transformative processes in immigrant mental wellbeing. *Anthropology & Medicine*, 16, 253-266.
- Sodowsky, G. R. & Lai, E. W.(1997). Asian immigrant variables and structural models of cross-cultural distress. In Booth, A., Crouter, A., & Landale, N.(Ed.), *Immigration and the Family: Research and Policy on U.S. Immigrants* (pp.211-234). Mahwah,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take, R. E.(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 Sage Publications.
- Townley, G. & Kloos, B.(2011). Examining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for individual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residing in supported housing environment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7, 436-446.

Abstract

**The impact of the social relationships on married immigrant women's multiple burden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s that act as 'hard shells' and 'wings'**

Sujeong Yu\*·Cheong-ah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social welfare implications for well-being and multiple burdens relief by revealing the social relationship patterns that affect the multiple burdens of married immigrant women. To this end, a case study was conducted on six married immigrant women. We analyzed the social relationships that affect their multiple burdens by comparing married immigrant women who are adapting to Korea to pupae waiting for becoming butterfli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ocial relationships that act as "hard shells" for married immigrant women intensified their burden as mothers, daughters-in-law, wives, and foreigner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social relationships, which are emotional, material, and information support, act as 'wings' and play roles in alleviating their multiple burdens. It shows that the newly formed social relationships of married immigrant women after immigration have important effects on their multiple burdens. Therefore, it suggested setting program's direction for gender-equality in the home, conducting cultural adaptation education based on mutual respect, and revising policies to expand self-help groups between indigenous and married immigrant women.

**Keywords :** married immigrant women, social relationships, multiple burdens, case study

---

\* First Author: Sujeong Yu, Ph.D. Student,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Choeng-ah Lee, Researcher, Institute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